

동포청,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
- 이상덕 청장·유정복 시장, 22일 전달식서 대회 성공 개최 결의 다져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5월 22일(목)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부영 타워 30층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내년 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에 대회 상징인 ‘한상기’(韓商簏)를 전달했다.
 - ※ 이 대회 운영위원회는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2026년도 대회 개최지를 인천광역시로 의결했다.
 - 이날 전달식에 참가한 이상덕 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2026년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인천 유치를 축하하고,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도 다졌다.
 - 또 한상기 전달을 계기로 두 기관이 향후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.
-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,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.

붙임 : 한상기 전달식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 장 이 경 아	032-585-3220
	동포경제지원과	담당자	사무관 황 인 용	032-585-3293